

전주를 사랑하는 분에게 무료로 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1900년대의 전주풍물

- 전시 일정 : 2001년 8월 28일 (화) ~ 9월 3일(월) 7일간
- 전시 장소 : 전주역
- 주 최 : 전주문화원
- 후 원 : 전주시 / 전주역 / 전주시자원봉사총합센터

전 주 문 화 원

전주부지도(全州俯地圖)

- 지정번호:지방유형문화재 제80호
- 소유자:전북대학교
- 시대:조선시대
- 지정날짜:1977년 12월 31일
- 규모:1점(點)
- 소재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1가 664-14

전주부지도는 전주부(全州府) 성내(城內)를 중심으로 부내의 전역을 그린 대형지도로써 4쪽의 병풍식으로 되어 있으며, 성의 표시와 성문, 그리고 관아의 배치·향교·서원·수목등이 그려져 있고, 부성(府城) 밖은 산천의 지형이 고식(古式) 표현에 의하여 그려져 있으며, 각면의 이름을 써붙이고 있다. 귀퉁이에는 전주부의 사방거리와 이웃 군현으로부터의 거리를 표시하고 있고, 부내 4면의 원호(元戶) 3,783호, 부외(府外) 각면(各面)의 원호(元戶) 12,215호 등 총 31개면에 원호 15,998호를 명기하고 있다.

옛 전주 사진 자료

1943년에 발간된 『全州府史』의 화보와 본문에서 많은 사진을 인용하였으며 기타는 『全北百年』, 『全北道史』, 『조선시대의 생활과 풍습』 등에서 활용하였음을 밝힌다.



1930년대 무렵의 전주 풍경



1930년대 무렵의 전주장터



1930년대 무렵의 전주장터 나무전



1930년대 무렵의 전주시장 전경



1930년대 무렵의 전주장터



1930년대 무렵의 전주 우(牛)시장



밥집이자 술집이고 여인숙이었던 주막(1930년대 무렵)



점방과 노점상이 어우러진 장날 풍경(1930년대 무렵)



건어물과 건과실을 파는 건물상 (1930년대 무렵)



장터한복관 짚신집 앞의 노점상들 (1930년대 무렵)



나무전 장작장수 (1930년대 무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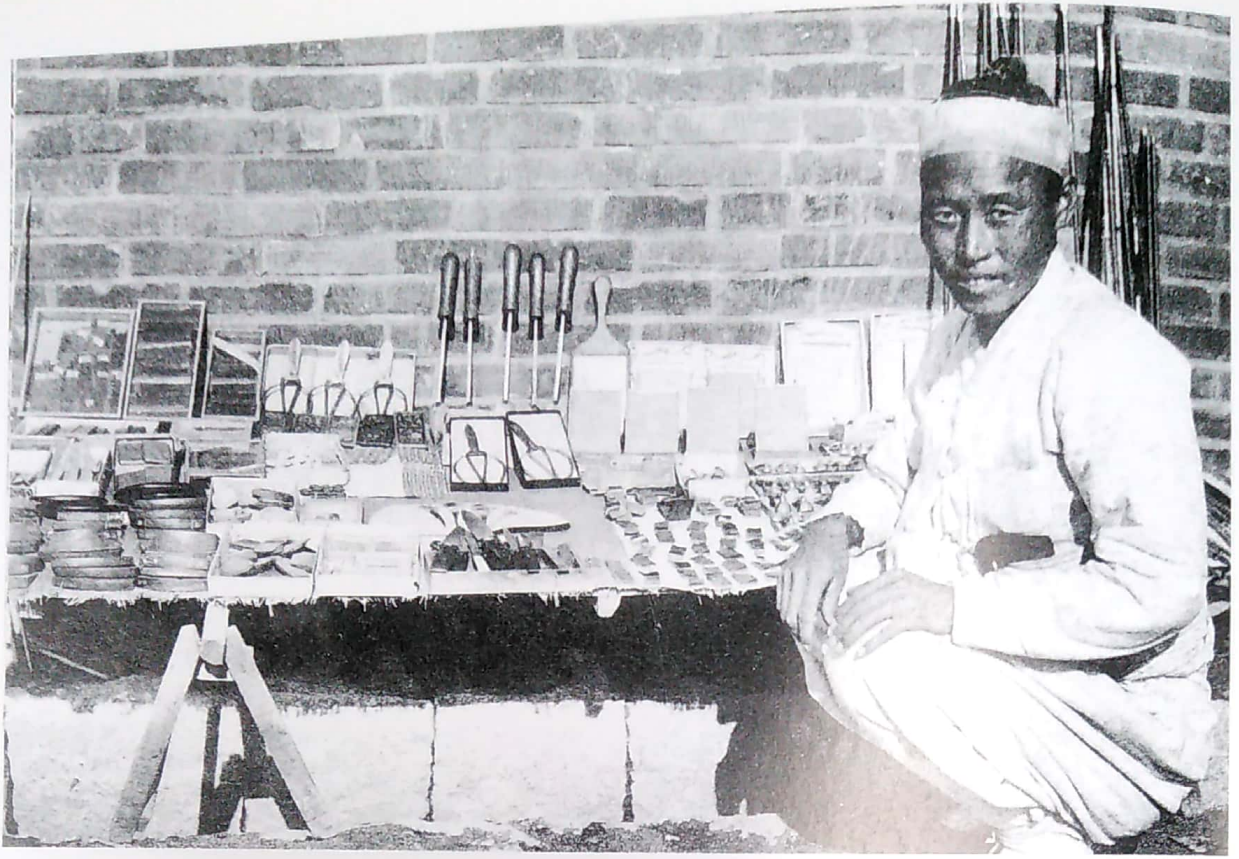
장터의 놋그릇 장수 (1930년대 무렵)



술 땀쟁이 (1930년대 무렵)



옹기전 옹기장수 (1930년대 무렵)



연모를 파는 좌판상인 (1930년대 무렵)



빗장수 노점상 (1930년대 무렵)